

신동기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세상보기



S.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심리학을 처음 만났을 때 당혹해 했던 기억이 있다.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저 해맑은 갓난아이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입에서 항문으로 그리고 성기로 성감대를 바꿔 가면서. 해괴망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 삶을 결정하는 심리학은 무엇인가(1)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패륜적(?)인 내용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리다니. 게다가 이 내용들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예술, 종교, 문화 등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니. 진짜 미쳤다.

자극을 이용한 행동의 통제

평소에 특별히 심리학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도 개를 대상으로 한 I. P.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36)의 실험내용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바로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는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나중에 종소리만 들려주었다니 개가 음식을 주면서 종을 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침을 흘린다는 내용이다.

I. P. 파블로프는 이 실험을 통해 '침을 흘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소리(중성 자극)'가 '침을 흘리게 하는 음식(무조건 자극)'과 함께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나중에는 '침을 흘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소리(중성 자극)'만 들

려주어도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즉, '중성 자극(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Stimulus. 다른 조건의 필요 없이 자극이 되는 것, 즉 훈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과 연합해 반복해서 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 없이 '중성 자극'만 주어져도 대상(개)이 반응을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성 자극(중소리)'이 '조건 자극(Conditioned Stimulus. 다른 조건에 의해 자극이 되는 것, 즉 훈련에 의해 반응을 보이게 되는 자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바로 심리학 기초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Classical conditioning 이론)'이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

'B. F.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 1904~1990)의 실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간다. 스키너는 '고전적 조건 형성(Classical conditioning)' 처

럼 대상의 수동적인 반응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고, 개 대신 쥐를 이용해 대상(쥐)의 능동적인 역할 변화를 통제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한쪽 벽에 먹이를 나오게 하는 지렛대 장치를 설치한 상자(Skinner Box) 안에 굶긴 쥐를 넣었다. 굶주린 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배가 고플 때마다 곧바로 지렛대를 누르게 된다.

이 실험은 바로 쥐의 '능동적인 조작적 행동'에 따라 먹이를 줌으로써 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굶주린 쥐에게 제공하는 먹이와 같이 '강화물(Reinforcer, 반응할 확률을 높이는 자극)'을 통해 '대상(쥐)'의 '반응(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Operant conditioning) 이론'이다.

/인문경영 작가&강사·경영학 박사

※출처: 신동기 저 '오래된 책들의 생각' (2017, 이틀라스북스)

사설

정도천년 전라도 이미지 개선부터

'전라도 정도 천년'을 1년 남겨두고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잇따르고 있다. 호남으로 대변되는 전라도는 예향과 의향, 민주화 등 역사적 고비마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치적 소외로 지역이미지가 왜곡된 터라 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지난 18일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이 주제였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은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실 우리지역 전라도는 예향과의 향, 민주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와 수탈

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면서 고립돼 온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무엇보다 역대 정권들이 호남을 그들의 집권 전략화하면서 소외는 가속화됐다.

특히 전라도는 동학농민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의향으로 불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이미지가 오해로 이념적 갈등,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의로운 일들이 권력에 의해 전라도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구실을 해온 셈이니 서글플 따름이다.

결국 '아픔'의 역사를 승화시키고 전라도의 부활을 위해선 바른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온 전라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비전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광주·전남·북이 상생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인구정책 단발성으로 성과 어렵다

전남도의 인구절벽 현상이 좀처럼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고령화는 가속도를 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또한 마땅치 않은 터라 더욱 걱정스럽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지표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역경제 활력의 주역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국평균 역시도 중 하위이다. 여기에 유소년 비율은 전국 13위, 고령화 비율은 전국 1위, 1인가구 비중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통계가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45 전남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더욱 암울하다. 2015년에 비해 2045년 생산가능인구는 32.4%, 유소년 인구는 36.4%가 각각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65

세 이상 인구는 112.4%나 늘어날 전망이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전남도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목적이다. 그러나 인구절벽 해소책의 경우 중앙과 연계가 필수인 터라 전남도 정책마저 미뤄지고 있다니 착잡하다.

인구가 늘기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도, 시·군이 일자리 정책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일시적으로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만의 특색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고



박재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를 지나치고 있는데, 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드문 실정으로 사고가 발생 후 신호위반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 조사 업무중 자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유형으로 보통 일반적인 사거리나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3색이나 4색신호등이 아닌 점멸신호등만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색점멸신호등이 켜진 곳을 지나서 A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을 지나서 B차량은 우선순위 및 주의의 무가 다른 사고처리를 한 경우로 각 차량의 주의 의무는 A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잘못으로 서행 운전한 B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

고, 또한 A차량은 가해차량으로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게 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로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6시)에 교차로 신호등을 점멸신호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곳의 주(主)도로는 황색점멸로, 부(副)도로는 적색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색,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단서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적색과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에서 황

색점멸은 서행하며 주의하여 통과하라는 신호이고, 적색점멸은 교차로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라는 의미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안이하게 서행하며 진입하다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점멸 신호등에도 우선순위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해서 운전하여야 하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외곽의 도로이지만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의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 많으므로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운전하는 등 교차로에서의 통행에서는 안전 운전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조금더 빨리 가려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를 바란다.

교차로, 적색·황색점멸 알아두자

기자수첩

인터넷 1인방송 규제 강화해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선정적인 콘텐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선정방송을 규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정적인 방송을 하더라도 영구정지 등에 대한 제재만 이뤄지고 있어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1인방송에 대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와 '청소년의 모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표현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다. 그래도 힘을 얻는 것은 후자 쪽이다. 아무리 1인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방송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기특이나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좀 더 기울여야 한다. 그간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사건·사고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지난 5월에는 강남에서 혼자 악성삽을 운영하던 30세 여성이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해당남성은 인터넷 방송에 나왔



이나라

사회부 기자

던 악성삽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 BJ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중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음란, 욕설, 패드립 등과 같은 자극적인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BJ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이 한 몫한다. 시청자를 끌어드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겠다는 BJ들의 욕심이 자극적인 방송제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을 보고 연예인이 입을 웃고 머리 언어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시절과 유사하게 인터넷 진행자들의 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 속에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정부는 1인 방송 규제 강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진 속 세상

가을에 활짝 핀 벚꽃



충남 태안군 태안을 동문리 길가에 이달 중순부터 벚꽃이 활짝 피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광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활용하세요

가정폭력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의 가족이란 구성원 자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상대방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폭력, 아이를 가두거나 굶기는 등 이런 행위도 폭력에 해당된다.

청소년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112신고통을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는 가정이나 이웃이 있다면 112나 1366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한상현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최永基, 사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 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A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45, E-mail: jndn@chol.com. 전산팀: 062)720-1033, 정취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충효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유머@세상

- 왜 춤을 출까요? - 그냥 갈매기가 노래 하니가 춤을 추지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 - 잠자리가 제일 좋다고 한다.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장님이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외식을 제일 많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알고 보니 거짓 더러구요. <아리송한 정답-2>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잠이 제일 많은 가수는 누구일까? - 남들은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이미 자고 있는 이미지 지요. 우리나라에서 배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일까? - 울산 조선소지요. 외식을 제일 많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장단지 지요. 간장 고추장이 들어 있으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춤을 추지요. <넌센스 퀴즈> 단골이 없는 장사꾼은? - 장의사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금급질병상담 1339, ▲미아·기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